

수도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원
한 진리를 체현하려던 가치실현을 위한 인격화
동족 실천수행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미망
된 현실은 결코 신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 모든 인간
자신이 지는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가 이에 책임
을 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른정진, 큰공덕 상반기49일불공

불공은 해탈에 이르는 길, 바른 삼밀관행법으로 용맹정진

상반기 49일불공이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 보살들이 동참한 가운데 동시에 입체되었다. 이불공 기간에는 국가진호와 자녀의 안녕과 경제력 향상을 서원하며 정진한다.

상반기49일 불공 입체에 즈음하여 종령(목정)님께서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요, 그 목적은 성불에 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닦아 대낮같이 밝고 맑은 마음으로 대광명의 빛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고 동시에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간적인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 종단은 진언과 다리를 주로 하는 밀교종단으로 음남(정법계진언)은 능히 삼업(신·구·의)을 모두 청정케하고 일체죄장이 다 소멸하며 일체승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있는 곳마다 청정한 의복을 얻으며 깨끗이 못한 옷이 문득 깨끗해지고 묵묵하지 않아도 묵묵한 것과 같은 것이니 만약 물로써 깨끗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요, 만약 이 법계심(남)자로 깨끗하게 한다면 이것이 진실로 필경 청



◆진언연습수행에 들어가 있는 총지종 교도

정한 것이 된다. 움치림(호신진언)은 능히 오역십악과 일체죄업을 소멸하고 일체병고죄장 및 악몽사매 귀신 등 모든 불상사를 제거하며 일체승사와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이 진언이 곧 모든 불심이니 만약 사람이 지심으로 한번 염송하면 능히 자기 몸을 수호하고 일체귀신과 천마가 감히 가까이 침범하지 못하며 두 번을 염송하면 동반자를 수호하며 세 번을 염송하면 한 집안 사람을 수호하며 네 번을 염송하면 한 성중 사람을 능히 수호하고 일곱 번을 염송하면 사천하 사람을 능히 수호하는 공덕이 있다.

음마니반메홀(육자대명왕진언)은 자기 있는 곳마다 한량없는 불보살과 천룡팔부 다 모이고 무량한 삼매법문이 구족하여 칠대종족이 다 해탈하고 배가운데 모든 벌레가 모두 보살 위를 얻을 지며 이 사람이 날마다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무진번제와 청정 지혜를 얻고 입 가운데 내는 기운이 다른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모든 진독을 여의고 보살의 위를 얻는다. 만약 사천하 사람들이 모두 칠보보살의 위를 얻더라도 그 보살들의 소유 공덕이 육자진언 한 번 염송하는 공덕보다 못한 것이니 이 진언은 곧 관세음보살의 미묘본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 육자진언을 서사하면 팔만사천법장을 서사한 공덕과 같으며 이 진언을 몸에 가지면 그 사람이 손이 닿는 곳과 눈으로 보는 곳의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준제진언은 능히 십악오역의 죄를 소멸하고 일체공덕을 성취하며 재가와 출가와 음주식욕과 대처협자를 불문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다만 지심으로 지송하면 능히 단명한 중생으

로 하여금 무량하게 수를 더하며 '가마라질도 오히려 나그든 하물며 다른 병이아 말해 무엇하랴' 만약 박복하여 직업이 없이 빈천하고 고통스러운 자가 항상 이 진언을 지송하면 능히 현세에서 운왕의 복을 얻고 구하는 바 관위를 받드시 얻을 것이며 지혜를 구하는 자 큰 지혜를 얻고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

반드시 자녀를 낳으며 무릇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 진언을 지송하면 국왕대신과 모든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켜서 불 때마다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불에 빠짐이 없고 불에 상함이 없으며 독약과 원가와 전란과 강적과 악몽과 짐승과 모든 귀매 등이 모두 침해하지 못하고 법대로 지송하면 관세음보살과 금강수보살을 친견하게 된다."라고 불공과 진언의 공덕을 설하시면서 "불공기간동안 종단내 모든 스승님과 교도 보살들이 오상성신의 불퇴전과 신구의 바른 삼밀관행으로 자신의 허물을 없애고 불성을 찾기 위해 용맹정진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하였다.

구법의(혹색)사용에 대한 지침시달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1월 16일(신년하례법회)에 종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구법의(혹색) 사용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총지종 종령(목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색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스승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6일 종령령으로 구법의(혹색)를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하였다. 구법의(혹색)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그동안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통리원장(법공)으로 하여금 구법의(혹색)는 조석정중시, 가정불공시, 장례시 장지불공, 기타 불편한 장소에서 불공시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3월중순부터 종조전 건립 공사추진 총지사2층에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한자리에



종조 원정대행사 진영

종조전 건립에 대한 설명회와 공사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전담건설위원회가 2월 13일 오후 2시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법장원과 통리원에서 연구한 종조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김병구교무가 제시한 종조전 양식과 규모를 확정하고, 총공사 예정금액 7천4백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3월 중순부터 총지사 2층에 종조전 건립 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담건설 위원장(우승)은 "종조전은 단순히 건물은 어떤 양식과 규모로 건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종단의 사상과 교상을 잇는 중요한 불사이기 때문에 종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하는 자세로 원만히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조전은 수십년동안 총지종 스승님 및 교도들이 염원해온 사업으로 전 집행부부터 종조전 건립에 대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종조전 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온 결실에 의해 이번에 건립하게 되었다.

종조전 건립공사를 직접 맡게 된 김병구 교무는 "총지종을 대표하는 종조전을 본인이 직접 시공함에 있어 책임감을 느끼며 불교적, 전통적인 양식으로 종조님의 초상화를 정면에 배치하고, 그동안 법장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종조님 유품, 친필원고 등을 전시할 유품 전시관을 양면에 설치하여 종조님을 참배함과 동시에 뜻을 기리도록 하였으며 종조탄신일, 멸도절 등 각종행

사를 진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통리원(통리원장 법공)은 이번 종조전을 건립함과 동시에 종조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종조님의 녹취록, 소실된 서적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세마니 및 각종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죽비소리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밟다 굽다는 마음 없으면
특 특이어 명백하리라

허공처럼 인용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도다

마음이 평등에 계할하면
주객이 함께 끊어지고
의심이 다해 없어지면
바른 마음이 고루 굳게 되느니라

중국선종의 삼소 승천스님
- 신심명(信心銘)중에서

인사 발령



사회부장 인법계전수



일상사 수현정사



일상사 지심관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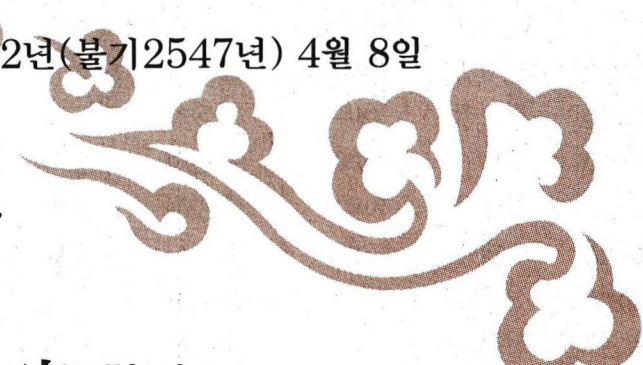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2월 15일자로 밀인사 인법계전수를 사 회부장에 임명하고 정각사에 근무하는 수현정사, 자심관전수를 일 상사로 인사발령 하고, 2월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한 11명 신규스승후 보자에 대하여 시 무발령(박인관(안 성), 황보상민(원 경), 이희자(경진 심)은 정각사, 최 명현(우인), 박노 주(보명심)은 개 천사, 유성형(법 우), 이육진(인지 사)은 만보사, 이종석(화영), 김홍배(법 사)는 법장원, 장선옥(금강문)은 운전 기, 이선희(정계월)은 총지사로)를 하였 다.



총기32년 상반기 49일 불공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요, 육자대명왕진언은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고뇌를 없애며, 관세음보살의 미묘본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 육자진언을 지심으로 염송하면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 일 시 : 총기32년(불기2547년) 2월 19일~총기32년(불기2547년) 4월 8일
- 장 소 : 불교 총지종 전국 사원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불자.



불교총지종 統理院長 法空 합장

풍경소리

행복

지위가 높고 돈 많은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 부부는 그 높은 지위와 '3천 컬레의 구두'로 대표되는 호사의 극치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을 수도 뇌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속에만 뿌리내리는, 그리하여 누구나 스스로 싹틔워 가꿀 수 있는 꽃씨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꽃씨가 들어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 강호형, (수필가)

작은 슬씨가 무른 초나무 되네

계란을 자세히 보시거나 눈,귀,코도 없이 등글등글하여 아무 지각도 없이 보이는 데 따뜻한 곳에 '꼬꼬' 하고 우는 물건이 그 속에서 나온다네. 매 알이 비록 작으나 그 속에서 송골매가 나오고 슬씨가 비록 작으나 낙락장송이 거기에서 나온다네.

알로 있을 때 보면 무정한 물건 같으나 이렇듯 당당하게 박치고 나오는 산 물건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법(法)도 이와 다르지 않다네.

- 용성스님-

- 왜 선정에 드시나오

프랑스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가

선사의 법문에 감화를 받아 참선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도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참선에 대한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좌복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 학문에 몰두했던 시간에 비해 무척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반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참선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선정에 드는 시간이 독서하는 시간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선에 들면 진정한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니까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 온 번뇌망상들로부터 조금씩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본래의 자성(自性)자리를 향해 다가 가게 되니까요."

일연(一然)스님의 말씀

세상에 제일 고약한 도둑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여섯가지 도둑일세. 눈 도둑은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하지 귀 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네. 콧구멍 도둑은 좋은 냄새는 제가 맡으려고 하고 혀바닥 도둑은 온갖 거짓말에다 만난 것만 먹으려 하지

제일 큰 도둑은 흠치고, 못된 짓 골라하는 몸뚱이 도둑.

마지막 도둑은 생각 도둑. 이 놈은 싫다. 저 놈은 없애야 한다.

혼자 화내고 떠들며 난리를 치지. 그대들, 복 받기를 바라거든 우선 이 여섯가지 도둑부터 잡으시게나

- 고승열전 중에서 -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밀교 -만아심경편제16화-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존재한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공"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지요.

우씨..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도 죽어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긴데...

하하하.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지? 아이구~ 헛갈려.

글.그림/정수일

하하.. 각자님이 공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죽은목숨이니 아무것도 아닌 "무"라고 생각 하는군요?

에이, 이왕 죽은목숨인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군.

여러번 말씀 드리지만 "공"과 "무"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떡입술 각자님처럼 공을 잘못 이해하여 공에만 집착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약이 있지요.

하하. 이왕이면 관에 넣어드릴려고요.

패액!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저를 보내버릴 셈인가요?

음~! 뭐하시는 겁니까?

좋아요, 그럼 색즉시공을 각자님처럼 해석해볼까요?

얼른 십전대보탕이나 주세요.

부처님께선 "색"이나 "공"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것을 경계하기 위해 색즉시공을 뒤집어 공즉시색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헤헤헤... 살아있을 때 많이 피우고 많이 치자. 죽고고~ 스텝!

맞아, 색즉시공이라잖아.

얼그림처럼 색에만 너무 집착하여도 잘못된 경우가 생기지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부처님께서선 색과공은 둘이 아니고 수상행식도 역시 공의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태어나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니 열심히 불도를 닦아라 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으아아~ 만두값 부탁해요, 대성사님.

색즉시공을 잘못 이해하여 이를 범을 꼬박 새우고있는 두 각자님.

나도 한마디

청소년교육 이대로 좋은가?

2월 18일 저녁 10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 라디오에서는 그날 오전 9시 50분 대구시 중앙로에서 정신불열증인 한 사람의 지하철 방화로 인해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서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정부는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수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 나라의 슬픔에 젖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고등학교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버스를 탔다. 카드지급기에 카드를 서너번 접촉하여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렸다. 그때 다른 사람이 카드지급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수 아저씨는 그 청년에게 "뒷 사람이 먼저 사용한 후 사용하라."라고 반말을 했다. 그때 그 청년은 "당신이 뭘데 나한테 반말을 해요"라고 고통을 쳤다. 운전수 아저씨는 화가 치밀어 오름을 참으며 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버스를 멈추더니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때 청년은 "뭘야, 당신이 뭘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맞대응했다.

운전수 아저씨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운

전을 해야만 했다. 운전하는 운전수는 화를 참지 못했던지 버스의 속도가 난폭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못내 삭막해진 현실에 회의감을 느꼈다. 아침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혹시 저 청년도 지하철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이 재 현)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The 4th Lantern Contest

제4회 등경연대회

연등축제의 주제이기도 한 전통등 문화의 현대적 복원과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든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정성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많은 창작등을 기대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접수대상**
 -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
- 경연부문**
 - 단체 행진등 부문 :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로서 참여대중이 들고 행진할 새로운 등
 - 개인 창작등 부문 : 개인이 자신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만든 순수 창작등
- 접수**
 - 기 간 : 불기 2547(2003년) 4월 7일 ~ 10일(4일간)
 - 접수처 :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 규격**
 - 단체 행진 등 부문 - 가로, 세로, 높이 50cm 이내
 - 개인 창작 등 부문 - 가로, 세로, 높이 150cm 이내
- 심사 및 발표**
 - 심사 : 4월 11일(금)
 - 발표 : 4월 14일(월), 개별통보
- 상금내역**
 - 부문당 최우수 1명(1,000,000원)
 - 우수 1명(500,000원)
 - 특선 2명(300,000원), 입선 각 약간 명(100,000원)
- 특전**
 - 불기 2547년 연등축제 등 전시회 참가(5월 2일 예정)
- 문의**
 - 조계종 불측위원회 전화 : 02)725-6641/ 팩스 : 02)725-6643/ hong@buddhism.or.kr

불측위원회

